봉하마을 수놓은 노란색 추모 물결

■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도식

전국서 4만 인파 몰려 고인 기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묘역에서 엄수됐다.

굵은 빗줄기 속에서 거행된 이날 추도식에는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등 유족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등 참여정부 주요 인사와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노사모 회원과 전국에서 몰려든 4만여명의 추모객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과 '상록수'를 따라 부르며, 고인을 기렸다. 또 1시간여의 추도식이 끝날 즈음에는 노 전 대통령이 '상록수'를 부르는 생전 모습이 영상으로 비쳐져 추모객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추모객들은 봉하마을 입구 2㎞ 지점에서 교통이 통제되자 마을 외곽의 주차장과 도로 등에 차를 세워두고 손에 우산을 받쳐든 채 걸어서 추도식 행사장까지 들어왔다.

이날 추도식은 도종환 시인의 추도사에 이어 추모연주, 묘역헌정사, 박석 추모글 낭독, 유족 대표 인사, 시민 조문단 100명의 나비날리기, 마지막 박석놓기, 유족과 시민 헌화분향 등이 이어졌다.

봉하마을에는 도로 양쪽에 노란색 바람개비와 리본 수만개가 내걸려 고인을 추모하는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 등과 함께 추모객들을 맞았다.

박은진(여·35·목포시 용당동)씨는 "곳곳에 걸린 노란 리본과 풍선이 노 전 대통령을 생각나게 한다"며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인산인해를 이룬 추모객들을 보니 우리 '노짱'이 더욱 보고싶다"고 했다.

또 한경탁(64·여수시 충무동)씨는 "20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을 하기 위해 진주 남강교를 찾았다가 우연히 노 전 대통령을 만나 마음을 고쳐 먹었는데…"라며 "고인만 생각하면 지금도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만 나온다"라고 울먹였다.

이날 봉하마을에서는 서거 1주기 추도식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박석(薄石)묘역 완공식도 열렸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추도식 직후 1만5000여명의 시민들이 기부해 조성한 박석(가로 20㎝, 세로 20㎝, 두께 10㎝) 및 묘역 헌정사를 했다.

이어 문성근, 명계남씨가 박석에 새겨진 '제 심장이 뛰는 한 절대로 잊지않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련다 바보 노무현' 등 추모글을 소개하며 울먹이자 추모객들도 눈물을 훔쳤다.

/김해 봉하마을=양수현기자 yang@

봉하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인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의 묘역 옆 공터에서 1주기 추도식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인 2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공원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서도 다양한 추모행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광주전남 추모위원회(위원장 최향동)'는 지난 2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공원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도사와 추모시를 낭독하고 헌화·분향 순서로 추도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찬용 국민참여당 광주시장 후보와 이병완 참여정부 비서실장(서구의원 후보), 박화강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강운태 민주당 시장 후보, 유태명 동구청장 후보, 장휘국 시교육감 후보, 지선 스님 등도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또 민족미술협의회와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23일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 전시실에서 '그림 전시' '추모 노래 부르기' '시 낭송' 등을 통해 고인을 뜻을 기렸다.

추모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공원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에는 1만명이 넘는 시민이 다녀갔다.

서울 도심에서도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렸다. 노사모와 시민광장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시민추모 모임'은 22일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오후 2시부터 조문을 받았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법원, 공짜폰 광고 '무상 제공' 의미 아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사용하는 '공짜폰'이라는 홍보 문구가 단말기 자체를 무상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대리점의 광고대로 공짜폰을 샀기 때문에 단말기 대금을 낼 의무가 없다"며 이모씨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판사는 "이씨가 휴대전화를 살 때 작성했던 단말기 할인 및 요금제 가입확인서에는 '약정금 전액 할인'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는 단말기 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준다는 뜻으로 읽힐 뿐 전액 공제한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밝혀왔습니다 본보 4월 12일자 사회면 '아파트 분쟁 40% 이상 관리소장 직무태만 탓'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는 "해당 조사 내용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 측에서 임의로 발표한 것으로 왜곡이 있을 수 있으며, 광주지역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무소양이 부족하거나 횡포로 인해 심각한 분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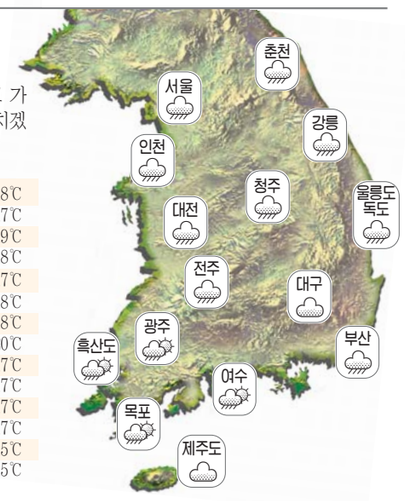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3분 해짐 19시 36분 달뜸 15시 51분 달짐 02시 27분

오전에 비 잠깐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다.

광 주	흐리고비온뒤갬	13/18℃
목 포	흐리고비온뒤갬	13/17℃
여 수	흐리고비온뒤갬	13/19℃
완 도	흐리고비온뒤갬	13/18℃
구 례	흐리고비온뒤갬	13/17℃
해 남	흐리고비온뒤갬	13/18℃
장 흥	흐리고비온뒤갬	13/18℃
고 흥	흐리고비온뒤갬	13/20℃
순 천	흐리고비온뒤갬	14/17℃
영 광	흐리고비온뒤갬	13/17℃
진 도	흐리고비온뒤갬	12/17℃
전 주	흐리고비온뒤갬	13/17℃
남 원	흐리고비온뒤갬	11/15℃
흑산도	흐림	12/1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먼바다	서~북서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3.0m
먼바다	서~북서	2.0~4.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보통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먼바다	서~북서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먼바다	서~북서	2.0~4.0m

	밀물	썰물
목포	10:56 23:45	04:08 16:29
여수	05:58 18:46	12:06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5(화)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날 씨						
최저/최고	12/18	13/25	13/26	14/26	15/26	15/27

5㎜ 찔끔 비 … 남해상엔 강풍

24일 광주·전남지역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4일 광주·전남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전 한때 5㎜ 가량의 비가 내리겠다"며 "여수·완도 등 남해상에는 다소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다"고 23일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14도, 낮 최고기온은 16도~20도 분포를 보이겠다. 이는 평년기온보다 6도 가량 높은 기온이다. 이번 비는 24일 오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5일 새벽 한때 다시 내린 뒤 그칠 전망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인공강우 실험 성공…1~2㎜ 내려

기상청 평택·안성서

기상청은 지난달 23일 오전 실시된 수도권 인공강우 2차 실험 결과 평택과 안성에 1~2mm의 비가 내렸음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상청 응용기상연구과 수문자원연구팀 관계자들은 비나 눈이 응결할 수 있도록 씨앗 역할을 하는 물질을 구름에 살포하는 '시딩(seeding)'을 한 뒤 레이더와 지상 자동관측장비를 이용해 강수를 확인했다. 시딩은 인천공항에서 북서쪽으로 5km 떨어진 지점 500m 상공에서 실험 당일 오전 9시께까지 약 12분간 이뤄졌고 재료로는 염화칼슘($CaCl_2$)이 이용됐다. 구름에 뿌리는 작업은 기상청이 임대한 6인승 세스나 비행기로 했다.

연구자들은 시딩 종료 2시간 후부터 강수 에코(기상레이더의 안테나에서 발사된 전파가 멀리 있는 눈이나 비 등 강수입자에 부딪혀 되돌아 온 신호)가 발달해 이동하고 있음을 레이더로 탐지했다. /연합뉴스